

산부인과 없는 고성, 이동검진 인기

군보건소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전개 ... 의료비 부담 경감, 555명 진료

고성군보건소가 지역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임산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고성군보건소에서 열린 진료에서 임산부 35명이 산전진찰을 받는 등 점차 호응이 좋아지고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강원도지회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산부인과 이동검진차량을 월 2회 운영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산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검진항목은 산전기본검사와 초음파 검사, 퀘드검사(기형아검사) 등 7종이며, 검사결과는 추후 개인이나 보건소로 통보, 상담해주고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무료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경감으로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부인과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보건소가 지역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임산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고성군보건소관계자는 "올해는 총 26회에 걸쳐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전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많은 임산부가 참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2010년 6월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29회가 실시됐으며, 555명의 임산부가 진료를 받았다.

원광연 기자

국적 취득 외국인 선거교육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선거권을 부여한 가운데, 고성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이 실시됐다.

강원도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고성군 건강지원센터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성지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거제도 및 공직선거법, 투표절차 안내 및 모의투표 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체납정리 우수부서 시상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성군이 자체 평가한 201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환경보호과와 해양수산과는 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고성군은 지난달 27일 월례회의에서 이들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표창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구독 및 광고 문의
☎033-681-1667

최광호 기자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추진

고성군은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없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도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설치된 지 30~40년이 지나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날려 지역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석면관리 정책 강화로 슬레이트 처리비

용이 대폭 증가해 철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1억2천만원을 투입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 등의 사업에 대해 60동의 대상자를 선정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며, 처리비용을 1동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자율방범연합대 제 5·6대 연합대장 이·취임식

평소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는 대원 여러분과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 겨울을 몰아내고 찾아온 따듯한 새봄과 함께 제5대 및 제6대 연합대장이·취임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 회 장
김 형 모(제5대)



취 임 회 장
임 기 복(제6대)

◇일 시 : 2012년 3월 10일(土), 오전 11시
◇장 소 : 고성군 여성회관 (3층)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